

승리의 생활 시리즈 1

다윗의 실패

The Rise and Fall of King David

James W. Knox 지음

고 정 인 옮김

KJ 도서 출판 **강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승리의 생활 시리즈 1
다윗의 실패
The Rise and Fall of King David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20. 6. 20

지 은 이 | James W. Knox

옮 기 이 | 고정인

펴 낸 이 | 김영균

디자인·편집 | 김화영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

■ ISBN 978-89-89741-00-8

■ 정가 7,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본서에 인용된 성경구절은 킹 제임스 흠정역 5판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시리즈 소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57).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14).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37).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승리만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들과 다른 많은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이 그들을 칭의에 이르게 하는 그분의 사역이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하심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성도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선한 행위를 포함하는 데에까지 미침을 믿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골로새서 2:9-10).

아무도 꾸며 낸 겉손과 천사 승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

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골로새서 2:18).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론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요한이서 1:8).

온전한 승리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이 구절의 문구는 구원을 받을 때 모든 성도의 계좌에 100%의 보상이 입금되었고, 그 보상의 전부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은 아버지의 선물로 주어지며, 보상을 얻거나 노력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우리 대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순간은 참으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후에도, 대부분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벌어야 하는 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제공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던 시간에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포기하거나 잃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한때 탕자였던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로 출생함에 따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 의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 되었으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번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도 없었던 반지, 옷, 신 등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오는 모든 회개한 죄인에게 주어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풍성한 축복의 장소에서 넘어진 남녀의 예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넘어졌는지를 검토하

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실패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변성하거나 혹은 넘어질 수 있는 승리의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떠난 정확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양은 자신의 우리를 떠났고 같은 장에 나오는 드라크마는 먼지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 때문이나 관련된 교리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에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와 관련하여 전도서 7장 29절을 깊이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안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권능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각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즉시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승리의 위치에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어났고, 그분과 함께 앉았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났고, 그분과 함께 감추어졌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높은 장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

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에베소서 6:10-14).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얻으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승리는 부주의하게 버려지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하지 않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한 로마서 8장 37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포함된 이전 시대의 최고이자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에 의해 선택된 남녀들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행한 한 번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이 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뢰의 행위가 평생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

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7). 그러나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술에 취한 그를 볼 수 있으며, 그의 잘못은 그의 아들 중 한 명의 수치스러운 넘어짐과 그의 손자 중 한 명의 저주를 초래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히브리서 1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람은 자신의 아내 사래에게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했고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21절)으로 시작하는 이 구절은 다음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하매 (창세기 27:24).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히브리서 11:24-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겠지만 어쨌든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히브리서 11:27-28)라고 기록된 같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자기 입술로 분별없이 말하였기 때문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33).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히브리서 11:30).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만났고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9:14-15).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히브리서 11:32). 이들은 에봇을 제작했고, 전투에 직면했을 때 비겁함을 보였으며, 성적인 어리석음을 범했고, 잔인했으며, 딸을 희생 제물로 바쳤지만 그들의 이름은 명예로우며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은 또 다윗과 (히브리서 11:32)라고 다윗의 이름을 언급

합니다. 우리는 이후의 장들에서 바로 이 다윗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 성령님은 다윗이 헛 족속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5:5). 간음과 살인이라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로마서 3:24). 주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6).

둘째로, 우리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도 극도로 사악한 마음과 (예레미야 7:24) 거룩하지 않은 것을 향하는 성향을 지닌 (전도서 7:20)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24).

우리는 서 있도록 지어졌고 물려서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의 약속과 함께 격려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 있던 많은 사람이 넘어진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부는 한 번만 넘어졌으며, 일부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에서 그들과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배우도록 훈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다윗왕의 넘어짐과 일어섬을 깊이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이 되도록 그분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구약시대의 체험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시내산기슭으로 여행을 떠나 금송아지 사건에서 많은 교훈을 배울 것이며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의와 관련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신약에 제시된 건전한 교리의 정의를 고려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8장에 나와 있는 승리의 삶을 숙고하여 전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의 성쇠

1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다윗과 밋세바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승리를 얻고 그 승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무엘하 11장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깊고 끔찍한 죄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라고 여기며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많은 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초자연적인 방식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자비를 통해 막내의 자리였지만 선택되었으며, 눈에 띄지 않는 목자 소년이었지만 사자, 곰, 그리고 거인을 물리칠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정복자가 되었

고 강력한 왕이자 위대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적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움에 나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사무엘 하 11:1). 다윗의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11장의 첫 구절에서 성령님은 시간을 나타내십니다.

그 해가 지나고, 이는 골리앗이 넘어진 후이고, 이교도들이 도망친 후이며, 승리와 찬양의 시편이 기록된 후입니다. 사울이 제거된 후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이며, 조나단이 헌신한 후입니다. 그의 민족이 기뻐한 후였고, 그 해가 지난 후였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었던 위대한 사건들과 승리는 힘과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경험은 그에게 자신감과 빛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가 지난 현재 그 어떤 것도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해의 정복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들이 전투에 나가고 있을 때 다윗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속한 행렬의 맨 앞에서 행진했더라면 지붕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그의 의무를 다해 갑옷을 갖추어 입고 군대와 함께

나갔었다면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막사에 있었더라면 병사의 아내 중 한 명과 누울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 삶은 선택들로 이루어지며, 그중 가장 작은 선택이 가장 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오늘 넘어질 것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큰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알았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전투에 갈 시간인데 전투에 갈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많은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명백한 행동에서만 죄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립 또는 유희 상태에서 죄를 생각하기란 어렵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은 성경의 엄청난 비극 중 하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장을 읽다 보면 이 싸움이 다윗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을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지체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가 전투에 대한 그의 의지를 잠깐 잃어버린 것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여자를 보았기 때문에 집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간음을 저지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 전쟁을 벌이기로 작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살인자가 될 의도는 없었지만, 행렬의 맨 앞에서 적군을 향해 전진할 의도 역시 없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알고 있는 다음 구절들은 우리 각 사람을 전쟁의 현장으로 데려다줍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3-4).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12).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고린도후서 10:4).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셀 수없이 많은 복과 보상을 줍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비롯해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 외에도 선과 악 사이의 큰 전쟁에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의무를 수반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도 군사가 되라고 요구하거나, 참여를 명령하거나, 신자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사용하는데 능숙하고 나가서 싸울 것으로 기대되는 군사라는 것은 기록된 사실입니다.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이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불려진 모든 사람은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이 주신 기지에서 승리하도록 기대됩니다 (히브리서 2:10).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1).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에베소서 2:8).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서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7).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에베소서 5:30).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서 6:11-13).

한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전투해서 승리하도록 기대되는 군사입니다.

이 구절들과 다른 더 많은 구절들은 우리가 이 삶에서 집과 가정과 재산을 누리며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쟁 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고 교회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전쟁을 피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하며 안전하게 행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동료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리는 옥상에서 빈둥거리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다윗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에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군사이고 왕입니다. 만약 우리가 넘어진다면 그것은 왕으로서 우리가 전투에 참여해야만 할 때, 게으름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바쁜 거리에

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양소 혹은 구조 전도단에서
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넘어집니
다. 넘어진 사람들은 삶에서 밋세바와 같은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만났
기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전투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
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른 마음, 게으른 손, 게으른 발 및 불순종하는 마음은 마
귀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높은 부르심인 영적 전쟁에 힘을 다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생각하도록 각 독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이 전쟁에서 제대란 없습니다. 매일 매일의 하루는 선한 싸움을 싸
울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전투에 마음을 바치길 바랍니
다.

다윗 왕의 성쇠

2

오늘의 실패는 종종 어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의 명령에 대한 헌신에서 점점 더 부주의해질 때 종종 그것은 잘못된 행동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덜 명령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무시할 때(마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큼 현명하다는 듯이),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규칙 역시 어겨도 된다는 의지를 키워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훈과 오래 참으심에 대해 대단히 감사해 하면서도, 그분께서 우리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심을 마치 우리의 잘못이 아무런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악한 결과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코 악한 결과

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미 사악한 마음 (예레미야 17:9)을 더 대담하게 만듭니다 (전도서 8:11).

예를 들어, 다윗은 헤브론에서 온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과 아내를 취했습니다 (사무엘하 5:13).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세 가지 구체적인 법이 주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법규는 국가에 왕이 있기 몇 세기 전에 설립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는데 그분의 뜻은 군주제 설립으로 인해 침해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17절은 히브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죄를 범하기 이전의 마지막 이야기는 시리아 사람들이 헬람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그들을 도망가게 했을 뿐 아니라 시리아 사람들의 병거 7백 대와 기병 4만 명을 죽였고, 그들의 군대의 대장 소박을 쳤습니다 (사무엘하 10:18). 그는 기병과 병거 취급자들을 죽였지만, 짐승을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적을 물리쳤지만, 율법에 따라 다윗이 하사품을 처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쳤다는 것을 듣고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를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전쟁을 하던 때에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 그를 쳤기 때문이더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져왔으므로, 다윗 왕이 그것들도 주께 봉헌하되 자기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봉헌한 은과 금 (사무엘하 8:9-11).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돈을 다룰 때는 다윗이 옳았지만, 여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비참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밋세바를 만나기 20년 전에 왕좌의 힘을 이용해 여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을 왕의 적들 200명의 목숨으로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더 많은 아내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역대기상 3장 1절-9절에서 그가 주님에게 얼마나 완전하게 불순종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맏아들은 예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요, 둘째는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난 다니엘이요, 셋째는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에게서 난 압살롬이요,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요, 다섯째는 아비달에게서 난 스바다요,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난 이드르암이더라. 이 여섯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났더라. 다윗이 거기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통치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시므아와 소밍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밧수아에게서 났으며 또한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블렛과 노가와 네벅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블렛 이 아홉 사람이더라. 이들은 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이 외에 첩들의 아들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더라.

이 아내들의 수는 미갈을 포함하지 않고 첩들의 수에 넣지 않은 채 세어보아도 7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아내를 모으는 것을 주님이 금지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상기시키며 자신의 반란을 정당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약간의 자유는 허용되었다고 스스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리라고 느꼈거나, 만약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하셨다하더라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 서 너무 가혹하게 징계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와 있었던 일로 미루어보건대 필시 그는 자신의 양심을 침묵시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욕신의 욕망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행동은 그가 어느 날 한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그에게 계속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4). 내면에 거하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을 것입니다 (잠언 6:10-11; 누가복음 11:24-26). 나단은 다윗을 책망하며 그 부유한 자는 양 떼와 소 떼가 심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삼상 12:2). 이러한 과잉과 무절제는 새로운 죄가 생겨나는 근원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보고 혼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수많은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여전히 끊지 못하는 작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묵인하는 사소하거나 혹은 선호하는 범법이 있나요? 다윗은 두 가지 법령을 지켰지만 세 번째에 대한 부주의 때문에 결국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언젠가 그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술을 마셔도 된다고 허락하는 사람이 그를 취하게 만드는 다른 무언가가 그를 삼켜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경솔하게 지출하는 사람이 미래에 도박에 습관을 들이거나 파산할 확률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남자를 유혹하는 여성이 내일 간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분노, 괴로움, 나태, 방황하는 눈빛, 완고함, 두려움... 이 외에도 많은 죄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머물도록 허락한 죄는 어떠한 것이든 결국 끔찍한 것으로 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기보다는, 다윗처럼 그 죄의 허용치를 낮추고 조절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오래된 육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한다고 명령받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죽이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승리의 삶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명령에는 순종할지, 어떤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랑의 주님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는 내일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의 성쇠

3

저녁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걸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우므로 (사무엘하 11:2).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윗 또는 여자 또는 둘 다 무언가 의도하는 것이 있었음을 함축하는 많은 암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지붕을 걸다가 한 여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죄의 행위가 아닙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그 여인이 목욕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지속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시간이 없이 그는 그 여인의 외모에 관해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일상적인 인간 행위 영역에 속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 보거나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눈을 멀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필요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고린도후서 10:5).

그가 아내가 아닌 여자에게 눈을 돌렸던 순간, 목욕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순간, 바로 그때 그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것을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서만 승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저하거나, 시선을 머물게 하거나, 곰곰이 생각해볼 때, 패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시험도, 독자 여러분의 시험도, 그리고 저의 시험도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이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도 드러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도, 그 상황이 이겨내기 매우 힘들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시험과 함께 (with the temptation)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피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구의 핵심 단어는 ‘함께(with)’ 입니다. 시험의 때에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죄의 방향으로 행해진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피할 길을 지나쳐 버리게 합니다. 다윗이 즉시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며 지봉을 떠나지 않았을 때, 이미 그 일은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15).

정욕은 등장하는 순간에 바로 죽어야 합니다. 만약 정욕이 살아나도록 허락한다면 그 정욕은 죄를 잉태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어떤 형태이든지 사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와 당신의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은 육체적인 정욕과

어떤 형태의 죄로 이끄는 기회를 얻고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든 생각이 두 번째 생각, 계획, 책략, 죄, 은폐, 죽음으로 이어지기 전에 즉시 생각을 다루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전투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은 바로 이 처음 순간에 정해집니다.

내 눈 또한 슬픔으로 어두워지고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같이 되었다 (욥기 17:7). 우리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시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 도시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예레미야 애가 3:51).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28).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마가복음 9:47).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가장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해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전도서 6:9).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다면 정욕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요한일서 2:16). 하지만 불순한 마음은 보는 것의 선물조차 불의의 길로 바꿉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베드로후서 2:14).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 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네 눈이 악하면 네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누가복음 11:34).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면서 많은 경이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집이 되면 많은 것들은 더는 바라볼 가치가 없어집니다.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보는 것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죄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에서 빨리 눈을 돌리고 우리가 바라본 것에 의해 떠오른 모든 부적절한 생각을 다스림으로써 내면의 더럽힘으로부터 서둘러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의 넘어짐을 통해 배

우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의 성쇠

4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헛 족속 우리야의 아내인 밋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라 (사무엘하 11:3)

영어 성경구절 (And David sent and inquired after a woman, And one said, Is not this Bathsheba, the daughter of Eliam,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의 맨 앞에 나오는 두 단어 “AND David”을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두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절이 “BUT David”으로 시작했다면 그의 삶과 국가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무언가를 본 후에 “AND David”이 따라왔고 그는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을 외면해야 했습니다. 그

려나 그란 “BUT”을 따르는 대신에 “AND”을 따랐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불순한 생각이 떠올랐든지 간에 그는 그것을 물리쳐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AND”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AND”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간음도, 한 남자를 술 취하게 만드는 것도, 살인도, 그리고 왕국의 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이러한 불법을 저지를 기회를 “AND”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아니면 “BUT”으로 물리쳐야 할까요? ‘그런 기회가 있었고, BUT...’ 과 ‘그런 기회가 있었고, AND...’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도록 합시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말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재물을 보고 탐하며, 육체를 보고 정욕을 품고, 우리의 혀를 부적절한 말을 하는 데에 쉽게 내주는지는 신약과 구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곳곳에 깔려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부와 내부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AND”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BUT”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왕은 단순히 누군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의 마음이 더럽혀진 순간 다른 이들도 오염되어 그의 사악한 계획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가 그의 명령을 받고 왕의 집을 떠나 도시의 길거리로 나갔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왜 왕이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아마도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일이신지요, 폐하?”

“저기 아래에 있는 집들 어딘가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내가 최근에 지켜보았는데...”이 설명 역시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로한 신하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에 가 있으므로)에게 당신의 정욕에 불을 지피는 이웃 여인을 찾아보라고 어떻게 요청을 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물어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라. 다윗에게 퍼지고 있던 이 악에 의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우리의 계획을 비밀리에 지시했다

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든 모르든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는 모두가 사망에 이르러야 할 때까지 계속 뻗어 나갔습니다). 부주의하고 육신적인 혼은 종종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죄란 없습니다. 인류는 한 가족이라 할 수 있으며, 구원받은 인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교회를 형성하여 그 몸의 한 구성원이 고통을 받으면 몸 전체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다윗은 첫 한 사람을 끌어들었고, 지금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내적 죄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15).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And David sent and inquired after the woman).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a man after his own heart, 사무엘상 13:14)이라고 부르신 바로 그 다윗이 그 여인에 관해 (after the woman) 물어보라고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한때 주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한 남자가 지금은 자신의 방에 앉아 앞으로 그를 파괴할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 여호와와 함께 있기를 갈망했던 그는 이제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여자와 함께 있기를 갈망합니다. 한때 그의 모든 생각은 그의 구속자를 향해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의 정욕이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생각으로부터 멀리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의 찬양을 잊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기도 역시 할 생각이 없는 듯하며 강력한 적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감동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없이 고통스러운 정욕과 함께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혼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그가 지금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의 생각에서 내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관련된 다윗의 불순종 행동유형을 주목해볼 때, 사무엘하 11장에서의 사건은 몇 년 또는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 저녁에 일어난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각자는 우리가 얼마나 파멸에 가까운지 경고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매 시간마다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리가 없어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높음은 다윗만큼 높은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경험은 다윗의 경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마저도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방황하는 눈, 점검되지 않은 생각, 죄에 굴복하려는 기회는 우리 각자에게 공통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귀한 왕으로서 하루를 시작했더라도 타락한 사람으로 하루를 끝낼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로 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1:4).

그에게는 죄를 지을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여인의 집으로 가서 왕 앞에 서도록 명을 전한 후, 왕의 앞으로 데리고 온 뒤 자리를 떠난 그 사자는 어떠합니까?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다윗이 부끄러웠고 창피했으며 그들이 자신에 대해 무어라고 말할지 걱정했고 그들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할 만큼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육신의 매혹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고 열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었고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 일을 치를 것이라고 결심했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15).

이 구절에는 다윗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문구가 있습니다 :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히브리 율법은 일 년 중 특정한 기간에 여인이 부정했고 그동안 그녀의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15:19-31).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다윗이 그 여인을 보았을 때,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을 때,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이 그녀를 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녀가 성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했음을 말해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봅니까? 딸, 어머니, 여성, 이웃, 예수님이 필요한 혼,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나요, 아니면 간음을 할 여인을 봅니까? 누군가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혼을 보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봅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무엇 혹은 누구를 보았느냐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눈으로 보았는지가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도 남자와 여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의 성쇠

5

다윗이...보았는데 (사무엘하 11:2).

이 삶에서 가장 멋진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력입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캠퍼스에서 ‘장애 인식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휠체어에 앉아 한 시간을 보내기로 동의했고, 누군가는 그들의 청력을 막는 장치를 사용하고, 다른 이들은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눈가리개를 쓰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60분은 저에게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눈을 떠서 매일 매일 수백만 가지의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달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력의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

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29절로 이번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보는 것이 놀라운 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 자극된 생각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혼은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시적인 장애가 영원한 저주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라보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성이나 적절한 것이나 부적절한 것 등을 보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하게 책망 받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내적 혹은 외적 범법으로 이어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의 창조물은 바라보기에 경이롭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식물,

동물, 산, 그리고 물은 우리의 감각에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이 매우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빛과 어둠, 그리고 타락과 의를 혼합시키는 이 방식은 함정과 올무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받을만하신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로마서 12:1),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몸을 억제하면 (고린도전서 9:27) 우리의 육신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 139:14). 하지만 우리의 몸이 죄로 가득한 욕정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비참하고 사악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성경은 삶이 나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 (빌립보서 1:21)이고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사도행전 17:25)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삶을 나쁘게 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축복이 자만으로 가득 차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만드신 분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만 영예를 얻으며, 감사로 넘쳐나야 할 때 자신에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삶이라는 선물을 부패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비난하지 말고 우리 안목의 정욕을 비난해야 한다는 걸 기억합시다. 보는 즐거움이 축복을 오용함으로 인

해 더럽혀지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각 개인은 해를 입게 됩니다.

전도서 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해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일서 2장 16절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해안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언덕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를 시기하는 것은 삶의 순간을 괴롭게 만듭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탐낼 때 우리의 영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여자가 분노를 느끼며 다른 여자를 쳐다볼 때, 남자가 다른 남자를 불만스럽게 평가할 때, 그리고 광고주들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보고 즐기는 것은 축복이지만 보고 갈망하는 것은 종종 저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이 욕기 31장 1절에서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윗과 밋세바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밋세바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맞세바에 관한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은 죄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를 욕욕의 문제로 만드는 것은 그 선물을 더럽힙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욕과 같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은 죄가 아니지만,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은 그것을 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은 고의로 죄가 될 수 있지만 잘 다스린 마음은 눈을 돌리도록 요구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생각을 거부할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주님의 통치하에서 우리의 눈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 나무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지만 바라본 것이 욕망으로 변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 정욕은 명백히 금지된 것에 대한 정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브를 볼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은

죄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이브에게 필요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승리가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봅시다. 죄 없는 여인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사랑스러운 나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나무의 모양과 색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오는 특정한 유익까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열매를 먹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녀는 그저 “안 돼,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주님께서 이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어. 그분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눈을 당장 돌려서 더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어.”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수치와 저주, 추방, 그리고 6천 년간의 상심과 사망을 피하고자 해야 했던 일은 이토록 간단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다음 가르침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모두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다음의 두 아내가 마귀할멈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아비가일을 사랑스럽다고 묘사했습

니다. 그래서 밋세바를 향한 다윗의 정욕이 그가 한 번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아내를 둔 남자가 다른 여자들을 쳐다봅니다. 멋진 집을 가진 여성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집을 동경합니다. 더 큰 보트, 더 많은 전자기기, 겉으로 보기에 더 행복한 가정, 또는 더 매끈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눈이 본 것은 무엇이든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 들은 것이 무엇이든지 다른 소리를 더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엇을 알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은 만족함 없이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행, 새 지갑, 또는 다른 파트너가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솔로몬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 발견했고 전도서에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인간의 마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이 보는 것에 관하여 몇 가지 행복한 진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혼을 휩쓸고 지나가는 기쁜 감정의 물결을 생각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눈길을 주어 삶을 가치 있게 만듭시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

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창세기 45:27).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선을 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9:36).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어떻게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지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마가복음 5:6),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혼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복음 17:15).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는 데에 우리의 눈을 사용해야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럴 보고 불쌍히 여겨 (누가복음 10:33).

우리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것이었더라 (요한복음 12:41).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
는 것을 볼 때 믿지 않는 이들은 주님께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
다.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사
도행전 13:12).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끔찍한 속박에 매어있는 이교도
들의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한 광경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헌
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
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하
므로 (사도행전 17:16).

그러므로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는지 그 방법을 배
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
십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 몸도 빛
으로 가득하되 네 눈이 악하면 네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시야에 영향을 미치
고, 우리의 시야가 우리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거룩한 눈으로 보거나 깨끗한 마음으로 평가
하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 몸의 지
체를 다스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로봇이나 자동 장치가 아닙니

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27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를 그분의 의로우신 통제 하에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동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거룩한 길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왕궁의 지붕을 거니는 왕에게로 돌아가 보는 능력에 대해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5절-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간음하는 자의 눈도 저물기를 기다리며 이르기를,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변장하느니라. 그들은 대낮에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표시해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땅을 파서 집들을 뚫으며 빛을 알지 못하나니 아침이 그들에게는 마치 사망의 그늘과 같도다. 혹시 누가 그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사망의 그늘의 두려움 속에 있느니라.

다윗의 비밀과 그의 범법을 덮기 위한 시도, 그리고 발견했을 때의 공포에 대해 이후에 충분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서는 간음하는 자의 눈이라고 기록하셨다는 것에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놀라운 축복과 얼마나 많은 끔찍한 죄들이 눈의 바라봄으로 인해 시작되는지요!

다윗 왕의 성쇠

6

그 여인이 수태하매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11:5).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한 통계적 연구는 없겠지만, 누군가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임신으로 이어지지 않은 수백만의 악행이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말씀에 반하는 죄를 짓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보셨지만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시선, 정욕, 열망, 그가 가진 힘과 권위의 오용, 하룻밤을 위한 육체적 쾌락이 모두 채워진 후 그는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

다. 다윗은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그 후에도 그녀에 대해 생각했을까요? 그의 다루기 힘든 마음의 한 부분이 이제는 그녀에게 매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그의 양심이 이미 인두로 지진 것처럼 돼버린 걸까요?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간음으로 인해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알 수 없지만 각자 자신의 성향에 따라 이에 대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밋세바가 다른 여인의 남편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두려움과 수치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왕에게 이 사실을 감히 알릴 수 있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이윽고 죄를 초래한 정욕이 이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망이 따라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죄의 쾌락들은 즐길 수 있는 반면에, 그러한 쾌락은 잠시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육신에 심는 계절이 끝나면 심었던 것을 추수하는 쓰라린 수확기가 옵니다. 두려움, 후회, 결과가 드러날까 고민하는 마음의 저울질, 죄를 덮고자 죄 위에 죄를 더해야 할지 말지 궁리하는 마음, 심판에 대한 겁에 질린 얼굴, 결국 승리해야 할 권리와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잘못된 것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죄를 짓는 인간의 일부분입니다.

다윗이 그의 범법을 숨기기 위해 움직이기 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영에 의해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몇 시간 정도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는 무모하게 저항을 했고, 자신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했으며 수치에 수치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 각 미래에서 또 다른 실패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항상 죄를 피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진심으로 회개하며 서둘러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피난의 도시로 도망을 하거나 복수의 손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다윗의 죄는 아주 끔찍했지만, 그 죄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엄청난 결과만큼이나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그에게 점점 더 큰 죄책감을 쌓아 올리게 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일서 2:1).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계명이지만,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을 위해 변호를 해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형량을 줄이겠다는 희망으로 변호자를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실망하시고, 화가 나시며 슬퍼하시는 것만큼, 그분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변호자가 되겠다고 서약하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므로 우리가 저지른 일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쓰라린 결과를 지워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파멸하여 넘어지기 전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빨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처음 죄 또는 실수 이후에 긍휼의 자리로 달려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어”와 같은 생각들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가 저지른 일을 모를 거라는 착각을 하며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행동은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분께서 이미 아시는데 왜 숨으려 하십니까? 그분께서 보살피시는데 왜 그분으로부터 도망가려 하나요? 그분께서 판단하시는데 왜 불순종의 길을 지속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덮으려고 시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거나 우리가 넘어진 후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제대로 대응하는 것을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우리가 은혜롭고 공홀이 풍성하신 변호자에게 나갈수록 그분께서는 더 빨리 우리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수태할 때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누군가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그러하듯 전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디모데전서 5:24). 이 구절이 사실인 반면에 결국 죄는 모두 알려지게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즉시, 혹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 혹은 우리의 죄가 당면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말입니다.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머잖아 모든 것들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왕좌로 서둘러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두 개의 선택은 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배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왕의 성쇠

7

같은 장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헛 족속 우리야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는지, 백성은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싸움은 잘 되어 가는지 다그쳐 묻고 다윗이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의 집에서 떠나매 왕에게서 온 음식물이 그의 뒤를 따르니라. 그러나 우리야는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야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네가 여행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 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종들이 빈 들에서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이까? 왕께서 살아

계심과 내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사무엘하 11:6-11).

밋세바의 수태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모두 다윗의 잠자고 있던 양심이 깨어나 그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게 아니라면 회개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는 명백하게 보이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부터 숨기기 위한 일련의 단계를 시작함으로써 어리석음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의 육신과 악한 마음으로 인해 위배되는 것을 경험했고 보아왔습니다. 그 말은 즉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공화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도덕을 음탕하게 만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관용으로, 은혜를 무관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공화를 허락으로 혼동합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신사적 이실 거라는 가정 하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죄를 동료로부터 숨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여 반드시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따라잡으시면 그분의 사랑과 동정심으로

인해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성경에 아무런 근거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의 감정과 소망의 영역 내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삶에 대한 동화 같은 접근은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방문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전투 현장에서 병사 한 명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그 병사가 왕의 신분인 자신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다윗은 이 보병에게 군사작전과 계략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습니다. 결말이 그토록 비극적이지 않았더라면 이 이야기는 코미디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왕이 군사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와 전투 계획, 그리고 적군의 힘 등에 대해 알고자 했다면 일개 보병을 부를 것이 아니라 고위급 장교를 불렀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단계가 너무 기이하고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미친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은 옳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속인 우리야에게 마치 그가 영광과 존경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야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재산을 속여 빼앗아놓고 그를 신뢰할 수 있는 병사처럼 대했습니다. 다윗왕은 차갑

고, 계산적이며, 무정했습니다. 그가 죄를 짓게 몰아간 자신을 향한 사랑이 이제는 그것을 덮도록 그를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을 둘러싼 어둠 속으로 그들을 교활하게 데려가는 동안 그러한 자의 친절할 말과 그럴듯한 표현들로 인해 그의 간교한 속임수를 감지하지 못하고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죄를 덮는 것은 자기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현신을 나타내며 자신이 속고 있다고 의심하기에는 너무나 선한 사람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다윗왕은 기도나 회개, 영적인 부흥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곤경에서 그를 확실히 해방시켜줄 음모를 계획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병사에게 목욕하도록 지시했고 (그의 양심이 너무나도 그을려서 그러한 지시를 할 때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걸까요?) 왕실 식탁에서 풍성한 식사를 하게 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어떤 남자가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보내기 위해 전쟁 중 자신에게 주어진 휴가를 즐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당연히 그들이 달콤한 결혼의 행복을 누릴 것이며, 우리야가 휴가 중에 아이를 가졌다고 짐작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완벽한 계획을 비밀리에 축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고...
우리야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니요? 그는 왕이 자신의 아내를 비밀리에
데리고 온 바로 그 문밖의 보도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다윗의 계획과는 완전
히 어긋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또 다른 날카로운 화살이 그에게로 보내졌습
니다. 그는 한때 충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섬기
던 왕을 기쁘게 하려고 쾌락과 안락함을 거부하며 불편한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섬기던 군주를 공경하기 위해 모든 안락
함과 현세의 기쁨을 희생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야의 이러한 행동은 다
윗의 과거를 상기시켜 자신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의
마음은 너무 강박했고 그를 향한 화살은 그의 마음을 찌르지 못한 채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가 각자의 고독한 슬픈 시간에 사랑하는 아내나 남
편, 사랑하는 어머니 또는 신실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던 여러 가지
일들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 또는 상황에 대
해 회개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를 떠올렸을 때, 마음이 부드럽고 작동
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몸서리가 쳐지고 겁에 질렸을 거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지고 양심이 그을렸는지, 자아를 섬기는 곳에 존재하는 생각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거나 아프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3:3). 정욕은 이 삶에 존재하는 좋은 모든 것을 확실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야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네가 여행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 궤(다윗이 한때 사랑했던)와 이스라엘과 유다(다윗이 한때 사랑했던)가 장막에서 머물고 또 내 주 요압(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과 내 주의 종들(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이 빈 들(다윗이 그의 삶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게 승리했던)에서 진(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강하고 행복했을 때 머물렀던)을 치고 있거늘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다윗의 마음이 한때 하나님의 손안에서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 생각할 때, 엄청난 기쁨과 시편의 부드러움을 기억할 때, 골리앗과 사울

과 주님 앞에서 겸손했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도대체 왜 그가 이 헌신적인 젊은 병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깊게 타락했는지 볼 수 없었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깨달았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아는 것보다 죄의 물줄기는 더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돌 저 돌에 부딪히며 해안으로 헤엄칠 수도 없이 하류로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채로 죄의 강으로 맹렬하게 돌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야가 바로 어제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도 없고 경탄함도 없었으며 밝았던 날들에 대한 갈망 역시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왕의 마음은 다음 음모를 계획하고 범죄 은폐의 다음 단계를 고안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보내 주신 말씀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되...내가...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이까? 왕께서 살아 계심과 내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헌신하는 신실한 병사이기 때문에 그녀가 내 아내라고 하더라도 밋세바와 눕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투에 집중할 때입니다. 아무도 집에 갈 수 없으며 다른 신실한 병사들이 가

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제가 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우리야의 이 말마저 다윗을 정신 차리게 이끌 수 없었다면, 그는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 죄에 굴복하면 그들은 적어도 얼마간은 여전히 종종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들으며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계속합니다. 얼마나 자주 목사님의 설교가 그들의 죄를 지명하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그들의 죄에 대해 경고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들은 타락했으며 다윗처럼 그들은 그대로 있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겸손해질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들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많이 낮추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에서 머무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떠나가게 하리라, 하매 이에 우리야가 그 날과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에서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자기 주의 신하들과 함께 침상에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사무엘하 11:12-13).

이에 대해서는 길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창조물은 자기 종류대로 번식한다고 말해주는 창세기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간음을 저지르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청렴한 우리야에게 술을 주어 마시게 하고 우리야는 취할 때까지 그러한 다윗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취한 우리야는 여전히 의의 원칙에 있어서는 신실했습니다.

이 시점에 술에 취한 그는 정신이 멀쩡한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야는 취했지만 그는 여전히 분별 있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술을 따라주기만 했지만 맑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이교도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이스라엘에서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누군가 죄에 빠지면 그 자는 즉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끌어내리려 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만약 모두가 틀렸다면,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는 더럽혀진 생각을 합니다. 기쁨의 원천이었던 다른 사람들의 끈덕진 곧바름은 이제 성가신 것이 되었으며, 곧바른 자들마저 육체적 쾌락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음이 악한 청소년은 자신이 어울리는 친구들까지 오염시키고자 합니다. 쓴 뿌리를 가진 사람은 교회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음란한 여자는 동료들의 거룩한 잣대를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다윗은 우리야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뜻을 행하도록 그를 조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잃은 사람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곧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교제할 수 있는 다른 타락한 혼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소곤거리고 불평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제멋대로 하는 이들을 충분히 찾는다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주어 도덕 기준을 낮추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설교의 효과를 악화시키고 기준을 낮추며 기대치를 바꾸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목사를 물려나게 하거나 교회를 부패시키려는 노력에 실패한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곧 죄에 빠져있고 거룩함을 조롱하며 올바른 생활을 멸시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그룹에 속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우리야를 흔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충실한 군인이자 남편이며 시민이었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고의로 혹은 부지 부식 간에 매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동기가 의로운 경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힘을 발

휘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과 그분의 거룩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와 자아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나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그들의 기준으로 인해 우리의 열망이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즐거운 진리를 만나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도록 도덕적 그리고 영적 실패의 광범위한 피해의 원인을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 왕의 성쇠

8

아침이 되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보내니라. 그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 두고 그로부터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사무엘하 11:14-15).

다윗왕은 가장 충성스러운 이들 중 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추락하는 다윗의 타락을 지켜보는 것은 고단합니다. 바닥을 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깊이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을 동경했다고 가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윗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가 요압에게 전해 줄 명령이 자신을 죽이는 일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는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까지도 더럽히고 해칩니다. 은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하수인이 신뢰할 만하고 고상한 사람이거나 의심받지 않을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처벌을 모면했다고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전의 행동이 그 누구도 우리가 그러한 큰 범법을 저지를만한 사람이라고 감히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 부모, 목회자, 또는 교인들의 확신을 이용하여 그들이 우리의 잘못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숨기도록 도와주게 만듭니다.

“우리야, 요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도록 하라.”

“고귀한 왕이시여, 무슨 명령이든지 받들겠습니다.”라고 우리야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다윗이 사망을 피하려면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는 이제 너무 타락하여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밋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음모를 수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몇 주 전에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한 죄악 행위를 다른 죄악 행위와 연결하는 이 사건의 사슬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 누구도 지붕에서 보았던 정육의 눈길이 살인으로 끝날 거라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육이 멈췄을 때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었

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풀린 표현으로 치부하거나 그것이 과장된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나면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은 그 자체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봅시다. 우리는 성경이 죄, 죄의 미묘함, 죄의 힘, 그리고 죄의 광범위한 결과에 대해 경고할 때 절대적으로 사실이라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압이 도시를 살피고는 자기가 알기에 옹맹한 자들이 있던 장소에 우리야를 배치하니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울 때에 다윗의 신하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이 쓰러지고 헛 족속 우리야도 죽으니라. 이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하며 사자에게 명하여 이르되, 네가 전쟁에 관한 일들을 왕께 고하기를 마친 뒤에 혹시 왕이 진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싸울 때에 어찌하여 도시에 것처럼 가까이 갔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누가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맷돌 한 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왕의 종 헛 족속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니라 (사무엘하 11:16-21).

첫째, 요압은 이것이 정신 나간 군사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다윗의 명령이 왜 그토록 비합리적이고 위대한 사령관답지 않은 것인지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기는 했지만 그 지시는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죄가 우리의 판단을 감아먹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선택은 불규칙해집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궁금해 하기 시작하며 “다 괜찮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잠언 9:10)이고 지식(잠언 1:7)의 시작이며,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수용할수록 우리의 이성을 더 많이 잃게 됩니다.

둘째, 요압은 다윗이 자신의 병사 중 한 명이 죽도록 특별한 조치를 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 후에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없이, 변호도 없이, 그리고 항소 없이 한 사람을 비밀리에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요압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고 다윗이 왜 이 사람을 죽이기를 원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빨리 그 부분에 도달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의 기록은 요압이 이 죄로 어떻게 왕을 헐박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다윗의 나머지 생애 동안 어떤 방식

으로 그를 조종하고 해를 입혔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이를 보며 우리는 다음의 따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나쁜 감정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의 기록들을 지워버리십니다. 사람은 각각의 실패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잃어버린 간증에서 가장 큰 해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을 향합니다. 우리는 자진해서 혹은 동의 없이 우리의 타락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평생 바라볼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죄에는 평생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패의 값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크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요압에 의해 존중되고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죄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은 사람은 결코 타락하기 전의 우리 모습처럼 우리를 다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불평이나 논쟁 없이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빚진 것보다 훨씬 적은 것입니다.

이에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자기를 보내어 알게 한 모든 것을 알리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확실히 그 사람들이 우

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해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덮쳐서 성문 입구예까지 이르렀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벽에서 왕의 신하들을 향하여 쏘므로 왕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이 죽었고 왕의 종 헛 족속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11:22-24).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닙니다. 몇몇 여자들은 과부가 되었고 몇몇 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될 필요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후에 요압은 큰 어려움 없이 도시를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쉽게 취할 수 있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신저와 다른 군사들은 다윗의 죄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그들의 적은 다윗의 죄로 인해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축하해야 했을 밤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부 사람들을 묻고 그들의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할 소식을 전달해주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보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야와 같이 저로 인해 해를 입은 제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실족한 이름도 알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 실패로 인해 상처받았는지 생각할 때 두려워 떨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일어난 각각의 죄 역시 그랬습니다. 그 피해는 항상 예상보다 더 멀리 뻗어 나가고 더 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로지 다윗이 원했던 거라곤 간음을 숨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로 인해 전장에는 시체가 널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이 일을 불쾌히 여기지 말라.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나니 그 도시를 향해 더욱 힘써 싸워 그것을 정복하라, 하고 너는 그의 용기를 북돋우라, 하니라 (사무엘하 11:25).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끔찍한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구했던 마음은 너무나 단단해져서 죄책감, 수치심, 후회, 동정심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다윗의 고의적 행동으로 인해 죽었고, 다윗은 이 혐오스러운 소식을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사고였다고 말입니다. 그런 게 인생이라고, 운이 좋지 않았다고, 운명이었다고 말입니다.

군사들은 그들의 사령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최전선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음탕한 사건을 숨기기 위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인한 자는 감히 너는 이 일을 불쾌히 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소름 끼치며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으며 그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확신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의 양심은 인두로 지진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요압, 우리야, 군사, 아내, 어린이, 종, 심부름꾼, 그는 그들 모두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가지만 중요했습니다. ‘내가 무사히 빠져나왔나?’ 그에게 다였고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그의 인생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며, 무시무시한 살인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그의 욕망에 의해 빼앗겨졌습니다.

저는 1977년에 설교를 시작했고 1981년부터 목회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마약과 술로 목숨을 잃고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망치고 많은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다윗만큼 비참한 자리까지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이고 꾸준히 타락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급격하게 타락했습니다. 주님의 좁은 길을 떠나 진창을 뒹굴게 된 남녀들 모두, 결국은 다윗이 요압에게 전한 비참한 메시지였던 너는 이 일을 불쾌히 여기지 말라고 저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더는 하나님, 간증, 훈, 기록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겪는 피해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 역시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책망 받지 않고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질문을 받지 않고 범법을 저지르기 원합니다. 그들은 지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언급하며 징징거리지만 정작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경멸하면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 큰소리로 외칩니다. 그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면서 자유를 약속합니다 (베드로후서 2:19).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 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잠언 30:20).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느니라. 한 세대가 있으니 오 그들의 눈이 어찌 그리 높은가! 그들의 눈꺼풀이 높이 들렸도다 (잠언 30:11-13).

이것은 육신입니다. 어떤 죄도 육신의 능력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스스로 왕좌에 앉은 자들이 변명

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구절을 살펴보며 이 진리를 우리의 혼 속 깊이 새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다음에 지을 죄가 우리가 지었던 마지막 죄만큼이나 해를 끼칠 것을 확실히 기억합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넘어진 후가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은혜의 왕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보고 이것이 의의 길을 떠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회복의 장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의 성쇠

9

마침내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미끄러지는 것의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엉망으로 되어버린 다윗을 볼 수 있지만, 다윗 자신은 정작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2장으로 가보면 우리는 타락한 자의 필사적인 마지막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그 장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길고 넓은 관점에서 다윗의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 봐야 합니다.

우리야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야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남편으로 인하여 애곡하니라. 애곡하는 일을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무엘하 11:26-27).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다윗, 밋세바, 우리야, 그리고 요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기록하신 저자는 이 이야기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능숙하게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다윗왕은 주님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주님도 개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떨쳐버렸습니다.

만약 밋세바가 큰 소리로 외쳐 울었다면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밋세바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니었지만, 신명기 22장 23절-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정혼한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처녀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군주의 절대 권력과 여성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침묵이 동의를 의미한다고 암시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녀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야는 청렴하고 명예로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주님은 그를 보호하거나 지키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죄의 시간이었고,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죽음의 삶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그에게 주어진 정신 나간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기도도 하지 않았고 슬픔이나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장은 방탕했던 에스겔의 시대에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에스겔 8:12)고 했던 말이 정확했다고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람들의 길을 관찰할 순찰자를 두지 않으셨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4:17). 아마도 기병들이 모두 철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1-2). 그러나 이 장이 끝날 무렵,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으로부터 영광의 왕좌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십니다.

우리야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야가...

자기 남편으로 인하여 애곡하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간음으로 인해 갈라지지 않았으며,

죄의 은폐로도 갈라지지 않았고, 죽음으로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밋세바는 우리야에게 속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이 환영받지 못한 어두운 곳에서 일어난 행동들에 동의하거나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궁전과 집에서 삶은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밋세바는 군인이었던 자신의 죽은 남편을 애도하고 묻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욕의 대상을 소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는 불쌍한 과부를 집으로 데려가 준 고결한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출산을 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범죄가 성공적으로 은폐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는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가장 심한 범죄조차도 아무런 심판 없이 행해졌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스러운 아내 옆에 앉아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를 애정이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벌로부터 교묘히 도망친 듯했습니다. 기쁨과 만족이 있었고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아침에 터지는 포탄처럼 이 한 단어는 즉시 우리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둔한 감각을 깨우고 그을린 양심을 자극

합니다. 이 단어는 한 번에 수천 개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는 교묘히 잘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신경 쓰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의 길이 분명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이 불완전할 수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판단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단순히 제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이 장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보시고, 아시며, 죄가 전개되어 갈 때 등장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들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요한계시록 4:11)께서 불쾌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

내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의 왕좌를 주신 사람이 이 모든 명령과 그 외의 다른 것들도 어기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졌습니다. 그는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5:5). 그의 힘과 부는 그가 의지대로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길 원하지도 않았고 대항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신과 군사들, 이웃, 그의 지휘 체계, 그리고 성막에 해를 끼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에 해를 끼쳤습니다. 사람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극히 높으신 분은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지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는 확실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다윗이 타락한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문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흠친 아내와 사생아 아들과 함께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

나눔은 화가 나셨고 다윗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다윗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래도록 축복받은 삶을 살고, 오늘부터 진리와 의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이 무수한 혼에게 진정한 축복과 힘의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이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잠언 15:3).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시편 139:7-12).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행이 그분의 눈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가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도록 그분의 말씀을 어기시면서 내버려 두시기에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장을 공부하면서 저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의 죄악에 대한 가장 끔찍한 이 기록에서 발견된 진리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우리가 부끄러움과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홀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께서 그런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주의 한 시대에 우리는 또한 그분의 공의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승리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시기를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 왕의 성쇠

10

이제 우리는 고비를 넘기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다윗왕의 마음을 돌리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자는 양 떼와 소 떼가 심히 많으나 그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 양 떼와 소 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해 거기서 잡아 차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차렸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

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양을 네 배나 값아 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 났으며 또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네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 족속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는 구절은 가장 흥미로운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로봇이나 꼭두각시이며 미리 정해진 생활을 살도록 미리 프로그램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주 괴물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서는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용하시고, 세상이 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허용하시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모두 그분께서 사랑을 원하시고 서비스를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선택하신다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행하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

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순종하거나 무언가를 행해서 생명의 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제안을 거절할 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단순히 옳고 그른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단련에서는 훨씬 더 큰 문제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한 편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15)는 구절이 있고, 다른 한 편에는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야고보서 1:14)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저는 죄 많은 육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면서도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주실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한 진정한 경배와 헌신의 행동으로 인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닌 실질적 행동으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장소에서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저는 오로지 지옥에서 벗어

나기 위해 당신에게 왔습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할 때를 제외하고는 제 인생을 방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 때 주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밧세바를 찾으러 갔을 때 그들을 방해하라고 나단을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야가 궁전 계단에서 잠을 잤을 때도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독한 술을 우리야에게 따라주었을 때도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살인 명령을 내릴 때도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시험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각본이 짜여있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할지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는 그러한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분명한 말씀보다는 존 칼빈과 같은 사람들의 철학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기 전에 다음 구절을 주의 깊게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 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역대기하 32:31).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신명기 8:2).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사사기 3:4).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관과 땅과 칭찬 등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제가 이것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저는 멈출 것입니다,” “저는 단지 열린 문을 찾고 있고 만약 문이 열려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인 “그냥 인도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라던가 “그 문제에 대해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시다.”와 같은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적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생각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부주의함과 게으름을 성화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느낌을 따르지 말고 성경을 탐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항이 없는 길을 찾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께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윗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으셨고 그가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허락하심으로 그에 따라 상을 주시거나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알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열렬하고 진실한 사랑 때문에 육신의 갈망을 부인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유혹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것을 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시며, 사탄 역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구세주 또는 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실 것이고 그에 따라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의 유일하고 소중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부자는 그 물건을 사랑하지 않았고 단지 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습득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어린양 한 마리를 사랑했지만, 그것을 보호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없이 행동하기에 부적격한 이유입니다. 본인이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

서도 다른 사람의 죄만 쉽게 볼 수 있다는 점과 본인의 삶에서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 분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한 범죄자에게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옳고 그른 것, 정의, 보복, 공정성 등의 원칙에 대해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없었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시키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구속시키지 않는 끔찍한 위험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범법을 범했을 때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거룩함에 반하는 자신의 더 큰 범죄는 경시하는 끔찍한 위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위선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 도둑에게 격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데려간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백성이 약간의 재산을 빼앗겼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남자의 인생을 끝내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 듯합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 보시

느니라 (잠언 16:2).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잠언 21:2).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 17:9).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는 것입니다 (잠언 28:26).

여기에 바로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마태복음 23:24)(역주) 실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짓고, 죄에 더 깊이 빠지며, 은폐하기 위해 더 깊은 죄에 빠지고, 속임수에 속임수를 더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얽히게 됩니다. 우리의 자기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린양을 취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기 보호는 우리의 죄가 발각되는 것과 그 죄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실패를 정당화할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자신의 실패를 받아줍니다.

우리는 위법 행위에 연루된 사람을 보며 “어떻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까?”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는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쳐다보지만 정작 자신의 범법이 보이게 되면 눈을 감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와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사랑과 자기 헌신을 눈감아주는 친구나 설교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진실을 말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침묵시키거나 그들과 분리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만큼 우리 자신에게 충분히 정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나단이 필요했고 우리의 삶에도 나단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양을 네 배나 값아 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이제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운명을 선고합니다. 율법은 양을 취한 것에 대해 사망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는 사

망을 요구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끝나기 전에 그가 흘린 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네 명이나 물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뿌린 것을 거둘 때가 되자 그를 향한 연민은 없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범법으로 인해 희생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누가복음 19:22)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젓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상태에 그토록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것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완전한 정의를 원하면서 우리 자신이 범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양 도둑에게 내린 형량은 법이 요구하는 바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자신의 삶에 숨어있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훨씬 더 적은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고 비판적이며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워집니다.

다윗의 분노와 그가 타락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분노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묵상하는 것은 각 독자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이 자신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정직한 친구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당신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진정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친구들을 찾고, 환영하며, 가까이 두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의 성쇠

11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사무엘하 12:7).

이 간단한 문구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쓰여 있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맹렬한 진실의 망치가 분노와 함께 다윗을 가격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단순한 말씀의 격노한 영광은 왕의 자기 망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간단한 진솔로 댐이 터지고 죄책감, 부끄러움, 공포의 홍수가 다윗을 바위 위로 쓸어버렸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의 깊은 협곡과 자신의 죄가 드러남에 대한 공포 속으로 그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추락을 막기 위해 매달릴 무언가를 찾으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지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몰락했고 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로마서 2:4). 나단은 다윗의 죄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고 그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는지

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웃 여자에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명의 군인이나 국가에 대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죄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 났으며 또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네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사무엘하 12:7-8).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짜로 주신 축복을 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려면 영원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에게 모든 창조물이 주어졌음에도 그는 그 나무 하나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축복이 다윗에게 주어졌음에도 그는 그 한 여자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여된 모든 좋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금지된 바로 그것에 손을 뻗습니다.

죄 그 자체는 큰 범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죄를 범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에게 불순종하려고 한다면 이는 타당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소원을 무시하려고 한다면 이 역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생명과 영원에 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축복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나열하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충분히 보답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기뻐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훨씬 적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 강력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네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사무엘하 12:9). 이제야 그는 명령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법을 성취하고 그분의 명령 지키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규칙들을

구속적이고 제한적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그분의 뜻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의 눈앞에서가 핵심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생각의 결론에 이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붕에서 밧세바를 내려다보았습니다(Look down). 그는 밖을 내다보면서(Look out) 그녀의 남편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압을 찾았습니다(Look to).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는 주님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Look up). 만약 그가 주님을 올려다보았더라면 주님이 배신당하신 밤에 장작불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서 그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다윗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경고나 축복 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거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별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잠언 15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회계보고를 요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간

음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살인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다윗은 1년 이상 주님을 올려다보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3. 우리의 길은 그분의 눈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의 성쇠

12

이제 다윗에 대한 나단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 신랄하고 강력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족속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족속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아내들을 네 눈앞에서 가져다가 네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네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

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12:9-14).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겼다는 비난으로 이번 장은 시작됩니다.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강력한 단어입니다. 다윗왕은 간음과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에 그것들은 그의 쾌락 추구에 방해가 되는 기본 규칙이자 사소한 법령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규칙을 정하신 분의 위대함과 그 규칙을 어긴 자를 대조라도 하시려는 듯이 자신을 주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명령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분의 인격, 뜻, 이해, 사랑 등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그리고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창조주의 길 밖에서 행복과 기쁨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는 그가 거룩하신 분의 법이 풍성한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으나,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패자가 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죄를 짓고 결국에는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이러한 자기기만은 이브의 자기기만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

으로 보여준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라 한순간 또는 평생 그를 따른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믿는 정부 하에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에 대해 분개합니다. 이것이 죄에 불을 지피는 연료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온전하며 만족스럽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것처럼 즐거운 삶을 향한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신실한 길로 향하는 이정표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다음 말씀을 되뇌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5:3).

다음 5가지가 다윗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죄의 값으로 선포됩니다.

1. 다윗의 가족에게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다.
2. 첫 번째는 아기의 죽음이다.
3. 그의 친족 가운데서 악이 일어나 그를 대적할 것이다.
4. 그가 밧세바를 대했듯이 그의 아내들이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5. 그리고 가장 슬프게도 모든 민족이 그의 이러한 잔혹성을 알게

될 것이다.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

앞서 참조되었듯이,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야고보서 1:15) 낳습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민수기 32:23).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바람을 거두리라 (호세아 8:7).

이 구절이나 그와 비슷한 구절 중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벌하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 깊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죄가 고통, 심적 고통, 슬픔, 죽음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께서는 은혜, 긍휼, 보호 및 축복을 때에 맞게 보류하시고 죄의 결과가 삶 안으로 들어와서 죄인이 주님을 배제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성경 본문에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

별(그것은 매우 큼니다)이나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저는 다윗이 그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은 대가에 대해 온전히 생각해보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웃의 아내와 육욕의 저력을 보내고자 했던 열망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혐오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과 그 후의 행동을 통해 왕은 자신의 삶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mammon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고 주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현대적 사고를 없애 버리십니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육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양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모두 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품에 안은 채 하나님을 마음에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둘

중의 한 명을 업신여겨야(경멸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는 다윗의 죄가 그러한 용어들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수, 오류, 잘못, 사고, 유전적 성향의 결과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궁색한 변명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면(위 참조),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택하신 말씀의 의미에 따라 다윗은 위대하신 스스로 있는 자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윗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보다 육신을 만족시키고 정욕을 만족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기보다 더 많은 죄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부함을 즐기기보다는 죄가 그 대상에게 지불하는 보상을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사실에 직면하자 왕은 마침내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그리고 왕좌로부터 즉시 답이 내려왔습니다.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버리고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치우셨습니다. 다윗왕은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죄를 두 번이나 저질렀지만, 사형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 받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그는 용서받았고, 그 값은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의 죄는 치워졌고, 많은 죽음과 손상이 올 것입니다. 그는 살 것이지만, 유혈은 그의 나머지 생애 동안 그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그의 범법에 의해 움직인 것들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거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단지 우리가 선택한 주인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도록 허용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 부주의한 세대에서 사람들은 주님을 업신여기고 육신을 섬기며 죄를 짓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용서받으며 그에 따른 결과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합병증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실 때 충격을 받습

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변호자이신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요한일서 2:1-2), 우리의 사정을 변호하시며 우리가 원한다면 아버지와의 올바른 교제의 관계로 회복시킵니다 (요한일서 1:7-10). 하지만 이는 우리의 범법에 의해 행해지는 사건의 과정을 바꾸거나 우리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행해진 결과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기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의 성쇠

13

여러분과 함께 이 연구를 시작한 이후로 제가 간절히 바랐던 성경의 그 부분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구절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사무엘하 12:13).

먼저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도, 그리고 다윗도 주님께서 다른 이의 마음에 무언가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만족할 정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감정도 섞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범법의 선언도 없었습니다. 제단으로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남자가 자신의 죄악을 직면했고,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10절이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배움의 목적을 위해 10절을 9절보다 앞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마음의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1년 가까이 다윗이 살아왔던 방식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타락했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일어났던 일이 잘못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성령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라고 하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신실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지만, 그의 실패는 주님의 마음이나 성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윗의 엄청난 타락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다윗을 위해 이를 즉시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단의 방문 전과 후에도 셀 수없이 많은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편 5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장의 제목은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밋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왕은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더는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더는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공훈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열어 그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갔으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직면하며 살았지만, 모든 세대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시편은 죄를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의 의도를 표현하는 혼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1절). 다윗은 가장 거룩하신 분 앞에 서 있는 범법자입니다. 그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친절과 부드러움과 긍휼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법과 거룩함은 다윗의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부모님의 속성이 죄인인 자신을 살려주시길 바라면서 주님과 탄원하고 있습니다.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2절).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그의 죄는 그를 더럽혔습니다. 그의 불법은 그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실패를 숨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의 상태를 감추기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럽혀진 것은 그의 속사람이었고 그는 죄 없으신 주님의 순결함이 그를 휩쓸어 죄책감과 수치심을,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초래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죄악을 없애주기를 갈망했습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3절). 그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법을 어겼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실수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다. 본인의 죄였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죄를 직시하자마자 빛은 다윗이 자진해서 빠졌던 어둠을 뚫기 시작했고 그가 타락한 이래로 그 죄책감에 의해 실제로 고통을 당해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추악한 방식으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상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였습니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4절). 요압과 그의 군대에 거짓말하기 전에, 그가 우리야를 멸하려고 하기 전에, 밋세바를 품에 안기 전에 다윗은 이미 죄에 빠진 것입니다. 지붕에서 그의 시선이 목욕하는 여인에게 처음으로 향했을 때, 다윗은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곳에서 죄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웃과의 관계도 옳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4절). 그러므로 죄에서 참으로 돌이키는 것은 행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마음, 동기, 소망에 관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은 저에 대해 옳으시니

다! 주님, 주님은 제 눈과 손과 생각에 대해 옳으십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그러한 의심을 떨쳐버렸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5절-7절). 다윗은 자신의 좋은 점만 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가볍게 여기는 것 또한 멈췄습니다. 그는 불법이 육신과 피와 뼈만큼이나 그의 존재의 일부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적인 의로부터 내면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회개로 인해 깨달은 이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제 속에서 진리와 올바른 지식을 찾고 싶으시다면 저 자신의 진리와 지식은 하나도 없으므로 주님께서 제 속에 그것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이토록 더럽힌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주님께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매우 귀하며 그 고백 속에 숨겨진 감정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겨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신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가 죄를 짓게 만든 바로 그것들을 없애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변명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단지 미래에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8절). 그는 죄를 지었을 때 잃어버린 행복한 감정을 회복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스스로 만든 어둠에서 그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다시 데려와 줄 내면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여자나 권력이나 소유물이나 명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한때 동굴에 살면서도 기쁨을 느꼈고,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즐거워했으며 순한 양 떼들과 함께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조화롭게 걸었을 때 그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었습니다. 주님을 빼고 인생은 살 가치가 없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9절).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으므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죄를 그분

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주님은 그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던지셨고 (이사야서 38:17)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17). 오늘날 그 죄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보배로운 피 아래 있습니다.

오 하나님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 그가 찾는 도움은 마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신을 창조하신 분께 자신의 마음과 영을 재창조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몇 구절 뒤에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이 용어들의 정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1).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을 형벌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거둬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면 그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요청 중 두 번째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영원한 내재하심은 신약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으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를 떠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것과, 자신의 영은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한

다윗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거하지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사람 그 영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깨끗함을 구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12절). 하나님의 영의 두 번째 속성이 여기에 주어집니다. 그것은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더럽혀짐, 슬픔, 죄악,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입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으며, 그에게 주어진 공훈은 확실했지만 (이사야서 55:3, 사도행전 13:14), 한때 그 구원에 수반되었던 기쁨이 오랫동안 부재했습니다. “오 주님, 제 영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인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자유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13절). 그가 깨끗하고 그의 마음이 올바를 때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 능력은 모두 이와 관련하여 쓸모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거룩하지 않은 그릇을 통해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면 다윗은 주님의 길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면 다윗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회심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정말 아마도 주인이신 주님을 자신이 다시 섬길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님 안에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안에 아마도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오 하나님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14-15절). 다윗은 온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손에 무고한 피가 흘렸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과 저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거룩하시며, 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실 수 있나요? 저를 구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한때 주님을 위해 노래했고, 한때 주님을 높여드렸지만, 주님의 속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친절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저에게 그저 글자였을 뿐이지만, 지금, 저는 그것들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6

절). 주님의 법은 요구되거나 자발적인 희생물에 대해 너무나 완전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거나 간음한 사람의 기록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위반에 대해 법은 죽음을 요구합니다. 주님께 바쳐서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변제 헌물은 이 법규에 없습니다. 만약 주님의 법의 구속력 있는 칙령만 있었다면 다윗은 파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7절). 하지만 노하신 여호와께 용서받고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올바른 영과 깨끗한 마음에 대해 읽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영이 상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옳도록 그것을 다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통회하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죄를 저지른 그분께 자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면 말입니다.

다윗의 영은 완전히 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깊은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마침내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더 이

상 은폐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자리까지 오게 될 때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웃을 취하게 한 사람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내를 두고 외도한 사람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을 죽게 하려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모두 알게 되면 우리를 멸시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파멸시킨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

소들을 드리리이다 (18-19절). 하나님의 사역은 다윗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리고 독자 여러분과 저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이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길에 참여하는 기쁨을 온 마음을 다해 알게 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각 독자의 마음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의 성쇠

14

마지막 부분에서 했던 다윗의 고백의 기도는 우리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나단이 담대하게 다윗을 대면한 후 그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며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32장이며, 이 장은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단어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역주: 영어 성경은 영어단어 Blessed로 시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쓰신 수단을 이해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속성이 그분께서 용서하실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분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때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를 기꺼이 용서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홀로 거룩하신 분, 다른 이들의 범법에 대해 마땅히 진노하시는 순결하고 깨끗하며 의로우신 분은 회개한 자의 죄를 제거하시는 일에 기쁨을 느끼십니다.

다윗이 했던 모든 끔찍한 일에 대해서도 이제 그는 축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현재 시제)... 복이 있도다 (현재 시제). 그가 잘못된 것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호와 친절과 동정심에서 발견된 기쁨이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인들의 삶을 회복시켜 그의 날들이 다시 한 번 축복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노하신 위엄으로 가려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대한 의로움을 충족시켰으며, 우리의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더 놀라울 수 있도록 여기에서 값을 치려야만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교리적 사실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4:6-7). 우리의 죄는 씻겨 졌고 깨끗해졌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요점은 주님께서 시간과 영원을 위해 다윗과 우리 각자에게 죽음을 요구하실 수 있었지만, 죄를 사해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주셨고 그 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가려주셨으며, 축복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2절). 첫 번째 축복이 있고 난 뒤 바로 두 번째 축복이 따라옵니다. 불법이 저질러진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죄인에게 죄책을 물으실 지의 여부는 전능하신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범죄자에게 죄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식적으로 기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고 부인할 수 없지만, 다윗의 진실한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기소를 철회할 것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영 안에 감사함이 없고...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2-4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김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어떻게 말라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이 사라졌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5절). 그리고 마침내

그는 회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중재자도 없었고 대제사장에게로 가지도 않았으며 세상을 떠난 성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거나 속죄를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불법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것이었고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받으러 나아갔습니다.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5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분의 긍휼은 얼마나 큰지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분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일으킨 내적 타락을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그분께 부르짖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잘못된 행동과 그 행동을 한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10).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6절).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요청 목록은 덜 중요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중 많은 것들은 사소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보거나, 주님을 그분 모습 그대로 보거나, 그분의 눈을 통해 우리의 길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단 하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이 소식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행위는 제외됩니다. 누군가는 충분히 나눌 수 없고, 다른 누군가는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섬기지 못할 수도 있으며, 어떤 공로 체계가 세워져 있든지 많은 이들이 또는 전부가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21; 로마서 10:13).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께 기도하리니... 이것은 오해가 아닐까요? 다윗은 간음을 저지르고, 누군가를 술 취하게 했으며,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지시하실 수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죄 사함의 척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용어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아마도 독자들 중 일부는 호기심은 있지만 회심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가 당신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주었거나, 일평생 해왔던 교회 생활이 당신을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게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당신의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있다면, 그분을 만날 수 없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6-7). 다윗과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당신도 이 행복한 무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을 회심시키는 데에 시간을 쏟으라고 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많은 사람은 영원한 후회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레미야서 8:20).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죄를 사하시려는 그분의 의지는 큰 기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와 구원이 더는 가능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시편 49장 8절은 사람이 죽을 때 하늘 문이 닫힌다고 말해줍니다. 환생, 연옥, 두 번째 기회, 보편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추어 있도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27:1). 죄의 용서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혼을 위한 구원을 얻습니다. 만약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의 기쁨의 시편은 계속됩니다. 참으로 큰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에워싸시리이다. 셀라 (6-7절). 다윗은 자신의 죄가 홍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피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일한 피난처로 달려갔으며 확실히 축복된 은신처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그를 보존하셨고 그에게 그의 노래를 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번 더 노래했습니다.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리하여야 그것들이 네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8-9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다윗이 기꺼이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후부터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며 가르쳐 주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10절). 주님의 긍휼에 둘러싸여 있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위나 다른 일들로 인해 여기서 언급한 슬픔에 대한 우리의 몫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자라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 주어지는 슬픔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긍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지어다 (11절). 다윗이 또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 누가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압, 명령을 전달한 자, 우리야 및 다른 많은 사람은 다윗이 또다시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공훈이 승리했습니다.

의로운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종교, 도덕, 그리고 윤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고, 용서하시며, 그러한 용서는 절망에 빠진 마음을 불쌍히 여김의 온전한 빛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디도서 3장 3절-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도 한 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공훈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37).

누군가는 우리의 잘못을 평생 용서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실패 후에도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받습니다. 이 죄 사함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 은혜의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다윗 왕의 성쇠

15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 이후에 일어난 다소 알쏭달쏭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다윗이 그러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척 놀랐을 것이고,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다윗의 죄가 제거된 후에도 그에게 닥친 결과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법 깊은 곳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 그 수렁을 벗어나 산 정상에서 누린 기쁨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의 햇살 아래 본인이 뿌린 것을 참을성 있게 거두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12:13-14).

겉보기에는 상충하는 말과 생각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죄가 치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같은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행동으로 인하여’ 가혹한 ‘그러나’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었지만 그의 행동으로 인해 죽음이 초래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적인 사랑의 같은 마음에 따라 탕자인 아들을 집으로 환영하신다는 사실 역시 확신해야 합니다. 이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분께서 공의를 유지하시면서 신실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하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에 의해 초래된 모

든 것들이 갑자기 멈출 거라는 의미가 아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간음한 여자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임신한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평생 그녀가 저지른 죄의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한 주정뱅이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래전에 떠난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거나 술에 의해 엉망이 된 건강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법정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판사에게 같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라는 단어는 엄청납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특정한 용서와 다윗의 잘못의 특정한 결과를 연결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공홀이 풍성하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우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야만 그 죄로 인한 결과까지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의 연못에 죄의 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멀리 있는 모든 해안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주님을 모독하게 할 이유를 주

었습니다. 다윗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지만, 주님 자신의 이름을 존중하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주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셔놓고 죄의 결과를 무효로 해버리신다면, 이는 자신을 스스로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것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무절제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해 마땅한 벌을 내리지 않는 가정을 관찰해보면 끔찍하게 버릇이 나빠진 아이들의 파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악을 행하고 그로부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회의 퇴보 상태를 우리는 숙고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곳에서는 죄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서 항상 악이 자랍니다.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다윗이 하나님의 지배에 굴복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이방인과 선택된 사람들의 앞에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내어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같은 증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무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 희생물로 바칠 때, 그분께서는 초라한 우리를 가져다가 그분의 이름에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십

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몸을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넘길 때,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그분을 찾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길에 있는 경이로움을 보거나 그분의 위엄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행동을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척도로 하나님의 중요성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쾌락에 빠지기 위해 그분을 쫓아낼 때, “하나님보다 나는 이 쾌락을 가질 것”이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개별적으로 행한 일을 나중에는 온 국가가 집단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24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은혜가 확실한 위로의 말씀이 엄격한 경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이 봉인된 글이

있느니라.

다음 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의 자녀의 생명을 위해 주님께 탄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죄가 없지만, 그 아이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의 존귀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행동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이 공훈의 노래와 행위로, 그리고 의로운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는 죄에게 자신을 내주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법의 결과를 근절해 버리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에 맞는 위엄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 많은 마음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리 충격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실 때 주님께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이를 만드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 결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초래된 슬픔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분입니다 (이사야 53:3). 그분께서는 위로자이시며,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이십니다 (잠언 18:24). 그리고 우리가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은 밭에서 수고할 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은혜와 그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말씀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애정이 어린 손길로 당신의 죄를 치워버리신 후에 여전히 당신에게 닥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겪을 때 그분의 징계하는 손을 멀리하거나 그분의 사랑에 의문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닥치든지,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103:10).

다윗 왕의 성쇠

16

사무엘하 12장 15절-20절은 다음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나단 대언자는 주님을 위해 말했고 이제 더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다윗과 교제를 하고자 온 것이 아니었고 그를 마구 혼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완수했으며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시매 아이가 심히 앓더라 (15절). 인생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온 것인지, 아니면 타락한 세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충돌하는 수십억의 죄 많은 삶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 또는 사탄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께서 직접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실 때가 있으며,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들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분노를 느끼는 몇몇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임했습니다 (로마서 5:12). 현대인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왕위에 앉아 있으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분노합니다. 거룩한 성경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가장 작은 흔적이 그분의 순결하심을 불쾌하게 하여 그 죄가 확실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자기사랑에 빠져 집착하는 부적절한 생각과 희망을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사랑하고 위하는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물론 저에게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심판의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분의 징계의 손이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도 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산타클로스, 오프라 윈프리 쇼, 조엘 오스틴과 같은 터무니없는 생각들은 이제 우리 사회와 교회에 널리 퍼져서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 의

해 자신들의 삶에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취하셨을 때 그 아들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이사야 53:10-11).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그 어떤 사람이 감히 그분께서 자기 아들이나 친족이나 혈육에게는 손을 들어 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친절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경시해서는 안 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대지 않으시리라 생각하는 곳으로 자신을 높이면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고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의 집 장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키려 하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더라 (16절-17절).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염탐한 날 밤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죄짓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간구를 해야 했는데 그는 죄의 결과에 관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것만큼 거룩함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였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18절). 앞서 언급했듯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Yes”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의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분의 대답은 “No”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앞뒤 문맥에 상관없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84:11)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 (요한일서 3:22)과 같은 구절들만 골라서 인용한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생각이 올바른 부모라면 자기 자녀들이 매일 저녁식사 대신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먹도록 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에 응답해주시신다는 생각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한 또 다른 인간 중심의 개념입니다. 놀라우신 조연자께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이름에 존귀를 가져오고
그분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간구만을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다윗
은 자신의 새 아내가 심적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큰 값
을 치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했는지, 그의 명예를 위해 수고하
신 하나님의 명성과 위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기도에서 주님의
위엄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병든 아이를 위해 아버지가 열렬하게 단식하며 하는 기도에서 누가
감히 잘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기만 바라보는
사람과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며 이는 잘
못되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은 진실과 의의 하나님의 이름에
묵인 한 왕국의 온 땅에 정욕에 사로잡힌 왕이 남긴 얼룩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간음하는 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 주님, 왕좌
에서 주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이 오점을 제거하신다면 이는 저에게 고
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거룩한 도시에서 왕좌를 차
지할 사람이 간음으로 태어난 이 소년이 아니라면 저는 매우 슬픈 것입
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 많은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그러한 요청을 동정합니다. 하지만 무한하게 흠 없으신 창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몸서리쳐야 합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요한복음 3:6).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갈망은 절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애정과 정욕은 거부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7:18).

다윗왕은 여자를 보았고 자신을 위해 그녀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어 큰 죄와 어리석은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다윗왕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했고 용서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왕은 아기를 보았고 자신을 위해 그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육은 억제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으며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자녀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아버지에게서 잘못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과 독자 여러분께 우리가 죄를

짓거나 회개하거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는 점을 성경 구절에서 찾아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우리는 내 뜻이 아니 옴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기를 본성 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42).

그렇기 때문에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 은 자라고 올바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충고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입니다 (잠언 3:5).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낮추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 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반면에,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인본주의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술꾼, 중독자, 도박꾼 등은 “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또한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매일 매일 우리는 의로운 분께 우리의 지체를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온전히 통제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왕에게 말하여도 왕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셨거늘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고하면 그분께서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리요?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자기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고는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러므로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죽었나이다, 하매 이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라. 그가 요구하매 그들이 그 앞에 빵을 차려 놓으니 그가 먹으므로 (사무엘하 12:18-20).

아픈 아이를 대신하여 드린 간구를 보면 위와 같은 행동은 경솔하거나 마음이 굳은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한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먹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죽음과 장례식과 슬픔과 좌절과 음모와 배신과 눈물과 슬픔이 있겠지만 다윗왕은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먹고 찬양하며 가족을 돌보

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스스로 초래한 삶입니다. 더 나았을 수도 있었지만, 죄로 인해 이것이 그가 걸어야 할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더 매끄러웠을 수도 있었지만, 범법으로 인해 그는 죽음을 수확해야 했습니다. 더 즐거웠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한 여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한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갈망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며 자신이 초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마음을 강박하게 하거나 주님을 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상이나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각 성도를 섬기는 가운데 이 주제에 관해 언급하면서 저는 이 주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진리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것은 너무나도 감정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도 차갑고 무관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의

진실이 있습니다.

1.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5:12).
2. 모든 사람은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해 죽게 됩니다.
3.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19). 1살 짜리의 죽음은 장수한 70세의 죽음과 비교되고 너무 짧아 보입니다.
4.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100세가 된 것이 어린아이의 날과 비교됩니다 (이사야 65:20).
5. 이유가 없는 사람들 (어린이, 장애가 있는 성인)은 죄로 인해 죽지만 그들의 죄는 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13).
6. 자신의 죄로 인해 죽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결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의해 죽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7:9).
7.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음의 문을 통해 아이를 데려가신 것은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거절할 수도 있었던 아이가 그에 대한 책임 없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긍휼의 행동이었습니다.

8.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시편 23:6).
9.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2:23).
10.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 57장 1절-2절에서 놀랍도록 위로가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공허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그는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스스로 곧바르게 걷는 자들은 다 자기 침상에서 안식하리로다 (이사야서 57:1-2).

다윗 왕의 성쇠

17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24절-31절을 읽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 밋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24절).

그렇게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던 상심이 있었을 것이고 심은 것을 거두는 과정 일부에서 많은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된 다윗은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분명히 오염되고 얼룩져 있지만 지속하는 가정의 삶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 새로운 출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를 과연 누가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화를 측정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할까요? 이 부부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든지, 그것은 그들이 지불했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토록 행복하고 평온한 장면이 그토록 끔찍한 이야기의 마지막에 결국은 온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놀라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압도할 만큼 동정심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시매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라 (25절).

아기에게 주어진 이름은 “주님께 사랑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자녀들에게 모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주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새로 태어난 이 아기는 왕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아기는 다윗이나 밋세바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거나 그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님께서 고의로 근심하게 하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하셔야 하는 곳에서는 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와 싸워 왕가의 도시를 점령하니라. 요압이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랍바와 싸워 물들의 도시를 점령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백성의 남은 자들을 함께 모아 도시를 향해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소서. 내가 도시를 점령하면 그것이 내 이름으로 불릴까 염려하나이다, 하니라 (26-28절).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처음부터 있어야 했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요압은 거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랍바 도시를 점령함으로 인해 그의 이름에 큰 존귀를 얻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이 점령을 마무리하고 승리하여 영광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업적을 통해 다윗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은 다윗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그에 대한 추문 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하고 강력한 전사인 요압에게 겸손하게 복종하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영예를 버리고 전사이자 왕으로서의 다윗의 위치를 다시 세울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군대의 선두의 올바른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전쟁터의 최전선으로 돌아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하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한 불명예

후에도 여전히 섬길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가 다시 승리의 기쁨, 교제의 따뜻함, 주님을 위한 성취의 기쁨을 알 수 있게 될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회복! 생각만 해도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타락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읽으셨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셨나요? 성령님께서 전쟁터에 용서받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직 있음을 당신께 보여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온 백성을 함께 모아 랍바로 가서 그 도시와 싸워 그곳을 점령하고 (29절).

그의 리더십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뒤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투가 시작되었고 성벽에 가까울수록 다윗은 우리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은 자신이 신뢰했던 왕에게 배신당하고 살해된 고귀하고 정직한 사람에 관한 생각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히브리서 13:4), 그러한 생각은 평생 다윗에게 자주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손에 검을 들고 전쟁의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그는 세력을 얻어가고 있

습니다. 그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타락의 흔적을 지니고 다닐 것이지만, 죽는 날까지 여호와께 사용 받을 수 있고 또 사용 받을 것입니다.

양심에 얼룩이 잔뜩 묻은 채로 전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용서받은 실패에 대한 남아있는 후회와 함께 성령님의 검을 다시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들의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취하였는데 그것의 무게는 금 일 달란트요, 보석들이 거기에 달려 있더라. 다윗이 그것을 머리에 쓰니라... (30절).

다윗은 왕관을 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왕관을 취했습니다! 그의 타락의 모든 단계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범죄를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고 주님을 찾았으며 주님께서 들으셨고 용서받았으며 회복되었고 전투의 장소로 돌아왔으며 승리했고 다윗은 왕관을 취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사랑, 용서,

회복, 소망, 그리고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타락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것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삼손 역시 죄를 지은 후에도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워 이겼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 모두가 기회를 잃는 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을 정당화할 충분한 성경적 증거도 있습니다. 아합도 여전히 공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탕자도 노래와 축제의 집에서 다시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과 마가는 실제로 자신들의 유익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에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가 그 도시에서 노략한 물건을 심히 많이 가져오고 (30절).

그가 벌지 않은 것, 받을 자격이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이 모두 다윗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아들이 받은 상과 같이, 여기서 성령님은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얼마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윗 왕의 성쇠

18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타락에 대해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했던 충격적인 노력과 그로 인한 모든 결과를 보았습니다. 12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암양을 빼앗아간 사람에 대해 가혹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셨고 죄의 삯인 사망이 그의 집과 가족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든 이야기가 이어 펼쳐집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와 싸워 왕가의 도시를 점령하니라. 요압이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랍바와 싸워 물들의 도시를 점령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백성의 남은 자들을 함께 모아 도시를 향해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소서. 내가 도시를 점령하면 그것이 내 이름으로 불릴까 염려하나다, 하니라 (사무엘하 12:26-28).

다윗은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한 싸움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압을 통해 하나님 께로부터 말씀이 왔습니다. “다윗아, 이리로 와라. 전쟁으로 돌아오라. 우리와 함께하자. 네가 할 일이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다윗이 온 백성을 함께 모아 랍바로 가서 그 도시와 싸워 그곳을 점령하고 (29절).

이걸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한 남자가 파멸에서 벗어나 부끄러움을 떨쳐 내고, 자녀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적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나란히 하나님의 설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과연 그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들의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취하였는데 그것의 무게는 금 일 달란트요, 보석들이 거기에 달려 있더라. 다윗이 그것을 머리에 쓰니라... (30절).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끔찍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는 다윗이 전투에서 왕관을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진실을 경이로움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합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고, 깨지고, 아직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를 주님께서는 다시 싸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아직 살날이 몇 년 더 남았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싸움터로 돌아와서 아직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심지어 머리에 왕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면, 반드시 징계해야 하시는 주님은 사람보다 훨씬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다윗은 우리 각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범법 때문에 많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언젠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왕관을 얻는 압도적인 기쁨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섬김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1000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2	13000
75	로마서 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80	사무엘 킵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 수준의 생활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종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86	칭의에서 성화로	김영균	102	5000
87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종욱	294	8000
88	믿음 사용 설명서	Linton M. Smith	96	4000
89	솔로몬의 인생보고서	전종욱	384	14000
90	룻기	전종욱	144	5000
91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	김영균	56	1000
92	다윗의 실패	James W. Knox	176	7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

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옮긴이 **고 정 인**

- 연세대학교 영어학석사
- 한마음미션
- 역서: 영의 세계, 믿음 사용 설명서

